

브릿지 에스와티니 프로젝트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

브릿지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성
관점에서 고찰한 정부(공공 부문)
비형식교육의 현재와 미래

배경

- 초등학교 618개소 >> 중·고등학교 275개소: 중등교육 접근성 부족
- 청소년 중 32%가 고아로 추정 (세계보건기구, 2019)
- 임신으로 인한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중퇴율은 18%, 중학교 중퇴율은 35%로, 시골에 거주하고 빈곤 계층에 속할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 (유니세프, 2019)
- 중학교 순 입학율 35%
- 구게자 및 은쿱위니 지역학습센터(CLC)에 비형식 중등교육 수업 개설 (지역학습센터는 브릿지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중 하나)
- 은쿱위니는 근처 고등학교에서, 구게자는 지역학습센터에서 수업 진행

브릿지 에스와티니 프로젝트를 통한 비형식교육 분야 성과 및 기여

-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퇴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제 2의 기회 제공
 - 성적 부진으로 인한 유급, 조혼, 조기 및 의도치 않은 임신, 학비 부족
-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장애요인 해소
 - 교복 착용 비의무화, 지역사회 내 안전한 등하교, 학비 비의무화, 학습 교재 지원,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책임 및 학습 병행, 자유로운 학습 시간, 나이 제한 없는 입학 등
- 비형식교육 교사 대상 비형식교육 방법론 교육 진행. 교사 동기 부여, 교사가 형식 교육 시스템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교수법 훈련
- 지역사회 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. 마을 지도자, 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의 지지를 받음

브릿지 에스와티니 프로젝트를 통한 비형식교육 분야 성과 및 기여

- 코로나19 대응
 -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SNS를 통해 비형식교육 수업 운영. 수업은 정부에서 지원한 공영라디오로도 송출되었음
- 파트너십 강화:
 1. 교사 및 실무자 파트너십:
 - 비형식교육 연수 중 국립 교육과정센터 전문 지식 전수
 - 구계자 지역학습센터 에스와티니 시험위원회 지정 시험 센터로 선정
 2. 지역사회 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습 공간 및 교사 전문성 확보
- 지역학습센터 2개소의 학생들을 위해 비형식교육 모델 도입
- 중등 수학능력시험(Junior Certificate, JC) 및 에스와티니 고등 수학능력시험(Eswatini General Certificate Secondary Certificate, EGCSE) 등 형식교육체계에서 제공하는 시험 응시 기회 제공
- 지역사회로 인프라 확대 –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

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해결과제

- 구게자 지역학습센터의 경우,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비형식교육이 운영 중이나 다음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
 - 낮은 입학률
 - 교재를 구매하기 어려움
 - 비형식교육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부재
- 코로나19로 비형식교육을 비롯한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악영향
 - 학생 지원 서비스의 부재로 퍼실리테이터의 지속적인 SNS 활동 불가 - 고가의 기기 & 학생들의 데이터 구매 불가

에스와티니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권 강화 관련 국가전략

2018년 국가 교육 및 훈련 분야 정책

- 영유아발달 및 교육(ECCCE) 부터 고등교육(HE), 비형식교육 및 훈련 등 교육과 훈련 관련 전 분야를 다루는 정책. 평생학습에 대한 에스와티니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고, 교육 서비스의 접근성, 우수성, 공평성, 타당성, 효율성, 효과성 측면에 주목
 - 단기 계획: 비형식 및 성인교육을 일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로 확대,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비형식교육 제공
 - 단중기 계획: 필요한 곳에 원격개방교육을 구축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제2의 중고등교육 학습 기회를 전국적으로 지원
 - 중장기 계획: 무료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전국 중학교의 공립화 추진
- 교육부는 현재 향후 10년간 교육 분야의 변화와 투자 방향을 결정할 '교육분야 전략 (ESSP)' 준비 중